

## 이젤랑 돌려다오

이 옥 너

어디서 찾을 수 없는  
잊혀진 이름이여  
빛바랜 겨레의 들녘은  
서격이었다.

무서운 비바람 속에  
무쳐버린 처녀의 비명은  
하늘 치솟았고  
밤은 점점 어두어졌다.

땅 밑에서 들리는 날카로운 소리에  
개처럼 끌려 간 아세아의 딸들  
먹장구름 술렁이는 슬픈 야경은  
야수들의 세상이었다.

정신대는 이미 인간은 아니었다  
여성의 상징은 개새끼의 하수고  
밤 마다 흉건히 흘려버린 배설물은  
토약질

고통 치욕 억울 설움  
피고름 섞인 침  
너의 얼굴에 내 뺨는다  
개같은 놈들

두려운 과거를 생각하기엔  
애처러운 지난 날의 악몽은  
세계 여인의  
아픔 아닌가

고운 입술 차랑았던 머리터럭  
이젤랑 돌려 다오  
먼 훗날 영혼에  
촛불 하나 켜보리라

성대가 찢어질 때까지  
세계 만방에 화별 것이다.  
내 기어히 찾고야 말리라  
잃었던 두 날개를.